

본 콘텐츠는 홈페이지 유료 상품의 일부입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밤이 다 끝나 갈 즈음에 새벽닭이 꼬끼오 울며 날 밝기를 재촉하고, 멀리서 파루를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 입고 탄식하며 다급히 말했다.

“좋은 밤은 괴로울 정도로 짧고 사랑하는 두 마음은 끝이 없는데, 장차 어떻게 이별을 하리오? 궁궐 문을 한번 나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터이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리오?”

영영은 이 말을 듣고 울음을 삼키며 흐느끼더니, 고운 손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홍안박명은 옛날부터 있었으니, 비단 미천한 저에게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서 이렇듯 이별 하니, 죽어서도 이렇듯이 원통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굳이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낭군은 철석같은 마음을 가진 남아인데, 어찌 소소하게 아녀자를 염려하다가 성정(性情)을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옆드려 바라건대, 낭군께서는 이별한 뒤에는 제 얼굴을 가슴속에 두어 심려치 마시고, 천금같이 귀중한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또 학업을 계속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운로(雲路)에 올라 평생의 소원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과 헤어진 김생은 온갖 근심 속에서 지낸다. 3년 후에야 과거에 급제한 김생은 회산 군 댁 근처를 지나다 ㉠ 문득 옛날 생각이 일어나 취해서 말에서 떨어진 듯 땅에 일부러 누워 버린다. 이 모습을 회산군 댁의 시녀들이 발견한다.

이때 회산군은 죽은 지 이미 삼 년이나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喪服)을 벗은 상태였다. 그동안 부인은 마음 붙일 곳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 무늬 자리에 누이게 하였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여 깨닫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다.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다. 궁중 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구름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을 드리우고 있었는데, 주렴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영영이라고 하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다.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녀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남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둘러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 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는 놀라서 말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희이라는 자가 달려와 아뢰었다.

“회산군 댁입니다.”

㉡ 김생은 더욱 놀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희가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도 못 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워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뜯어보니, 그 글에 일렀다.

박명한 첩 영영은 재배하고 낭군께 사립니다. ㉢ 저는 살아서 낭군을 따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해만이 남은 숨을 헐떡이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어찌 제가 성의가 없어서 낭군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은 얼마나 아득하고, 땅은 얼마나 막막하던지! ㉣ 북송아와 자두나무에 부는 봄바람은 첩을 깊은 궁중에 가두고, 오동에 내리는 밤비는 저를 빈방에 묶어 놓았습니다. 오래도록 거문고를 타지 않으니 거문고 갑(匣)에는 거미줄이 생기고, 화장거울을 공연히 간직하고 있으니 경대(鏡臺)에는 먼지만 가득합니다. 지는 해와 저녁 하늘은 저의 한을 돋우는 데, 새벽별과 이지러진 달인들 제 마음을 염려하겠습니까? 누각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면 구름이 제 눈을 가리고, 창가에 기대어 생각에 잠기면 수심이 제 꿈을 깨

웠습니다. 아아, 낭군이여! 어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또 불행하게 그사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어 편
지를 부치고자 하여도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헛되이
낭군의 얼굴 그릴 때마다 가슴과 창자는 끊어지는 듯했
습니다. 설령 이 몸이 다시 한번 더 낭군을 뵈는 다 해
도 꽃다운 얼굴 은 이미 시들어 버렸는데, 낭군께서 어
찌 저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낭군 역시 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 다 해도 저의 한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아, 어
찌하리오! 그저 죽는 길밖에 없는 듯합니다. 종이를 마
주하니 처연한 마음에 이를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편지 끝에 다시 ㉔ 칠언 절구(七言絶句) 다섯 수가 씌
어 있었다.

好因緣反是惡緣

좋은 인연이 도리어 나쁜 인연이 되었으나,
不怨郎君只怨天

낭군은 원망스럽지 않고 하늘만 원망스럽네.

若使舊情猶未絶

만약 옛정이 아직 끊이지 아니하였다면,
他年尋我向黃泉

먼 훗날 황천으로 날 찾아오소서.

(후략)

김생은 다 읽은 뒤에도 오랫동안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였으며,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두 배나 더 간절하였다. 그러나 청조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흰기러기는 오래도록 끊
기어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다. 끊어진 거문고 줄은 다
시 맴 수가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
니,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동년배인 이정자가 문병을 왔다. 김생
이 정자의 손을 잡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병이 깊어진
까닭을 말하자, 정자가 놀라더니 위로하며 말했다.

“이제 그대의 병은 낫게 되리라! 무릇 회산군 부인은
나의 고모로, 나와는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대가
품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부인
은 남편과 사별한 이후로 이승과 저승, 인과응보(因果應
報)와 같은 불교의 설(說)을 믿어 재산과 보배를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하여 베풀니, 내 가 그대를 위해 다시 영
영과 만날 수 있도록 일을 도모하겠다.”

김생은 기뻐하며 말했다.

“뜻하지 않게 오늘 모산의 도사를 다시 만났구나.”

김생은 거듭거듭 약속을 정하고 두 번 절한 뒤 정자
를 전송했다.

1.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후기 국문 소설은 대부분의 사건이 시간의 흐름
을 따라 전개되는데, 필연적 상황이나 원인 없이 우연
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인물의 성격은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며, 주인공을 도와 사건을 해결하는 조력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갈등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
타나는데, 그 원인 또한 외적, 내적 요인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 ① 일반적인 조선 후기 국문 소설과 같이 사건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② 이정자와 회산군 부인은 김생을 도와 사건을 해결하
는 인물로, 조력자에 해당한다.
- ③ 영영이 차를 가져온 일, 이정자와 회산군 부인의 관
계 등은 사건의 우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영의 신분을 고려할 때, 이 글의 갈등은 사회 제
도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김생은 말에서 떨어진 뒤 회산군이 집에 있는 영영
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 이후로 성격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김생과 관련하여 ‘이정자’가 가졌을 생각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던 사람인데 무슨 병이 갑
자기 생겼다는 말인가.”
- ② “김생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영영이 바로 우리 고
모님 맥의 공녀란 말인가?”
- ③ “김생의 병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니 어쩌면 쉽게 고
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 ④ “고모님을 설득하려면 김생의 상황을 좀 더 과장되
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군.”
- ⑤ “고모님의 성품이라면 김생의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야. 영영과 김생을 맺어 주셨으면…….”

[앞부분의 줄거리] 평양 김 진사의 딸 채봉은 단풍 구경을 나섰다가 전 선천 부사의 아들 장필성을 만나 호감을 갖게 되고 필성 과 혼인을 약속한다. 김 진사는 벼슬을 할 생각에 허 판서에게 채봉을 첩으로 보내기로 약속한다. 가산을 정리하여 서울로 가던 중 김 진사 일행은 도적을 만나고, 혼란 중에 채봉은 도망하여 평양으로 돌아온다.

김 진사는 자결이라도 하고 싶으나 헛된 욕심에 눈앞이 어두워 홀로 생각하기를,

‘서울에 오천 냥 맡긴 것이 있고, 더군다나 그간 과천 현감이 되었을 터이니, 몸이 귀히 된 후 채봉도 수소문하여 찾고 재산도 다시 모으리라.’

하고 나머지 살림을 팔아 노자를 마련한 후 두 내외가 걸어서 서울로 올라갔다.

상경한 김 진사 내외는 전에 묵었던 객줏집으로 거처를 정하고, 이튿날 허 판서를 찾아갔다. 허 판서는 김 진사를 보고 반기며,

“오, 김 과천 오시나. 그래 올라오는 데 힘들지 않았는가? 자, 우선 급할 터이니 과천 현감을 구경하려나?” 하더니 문갑에서 칙지를 내어 준다. 김 진사가 칙지를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혼 빠진 사람처럼 눈물만 흘리고 감히 받지를 못한다. 허 판서가 그것을 보고 껄껄 웃으며,

“왜, 너무 반가워서 그러나?”

김 진사가 일어나 절을 하고 칙지를 받아 앞에 놓고는,

“대감 덕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운수가 불길하여 올라오다가 죽을 고비를 겪어 대감 뵈옵나잇 없습니다.”

허 판서 깜짝 놀라며,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죽을 고비를 겪다니?”

김 진사가 ㉔ 자초지종을 다 말하니, 허 판서 별안간 눈이 샅쭉해지며 가엾은 생각은커녕,

‘이런 맹랑한 놈을 보겠나! 어찌 되든 과천 현감은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내려갈 때는 허락을 하더니 이 제 와서 탄소리를 해!’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한번 몸을 부르르 떨며 놀라는 체한 후에 김 진사의 얼굴을 훑어본다.

“참으로 고생했네. 그래, 재물은 도적이 가져갔거니와 딸이야 왜 못 찾아 가지고 온단 말인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대감 위력이나 빌려 가지고 찾으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허 판서가 얼굴이 벌게지며 버럭 소리를 지른다.

“이놈! 소위 부모가 되어서 난리 중에 자식을 잃고 찾을 생각도 아니 하고, 뉘 힘을 빌려서 찾으려고 해? 맹

랑한 놈!”

하더니 별안간 하인을 불러 옥에 가두라 이른다.

“이놈! 네 딸을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오천 냥을 마저 바치든지 해야 무사하리라. 이놈아! 그따위 소리를 뉘 앞에서 하느냐? 시골 내려갈 때는 주선훘 주마 하더니 현감 자리가 굴러 들어오고 나니까 탄소리를 해!”

하고 다시 말할 새도 없이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평양으로 돌아온 채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허 판서에게 가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로 부터 듣고, 돈을 구하기 위해 ‘송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된다. 한편 평양 감사 이보국은 송이가 서화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 몸 값을 주고 송이를 데려가고자 한다.

“송이를 내가 부리고자 하여 본전에 천 냥을 더 주는 것이니, 네 마음은 어떠하냐?”

기생 어미의 생각에 손해 보는 것 같으나 어찌하리오.

“몸값을 아니 주셔도 바치라 하시면 거역 못 할 터이온데, 하물며 돈을 더 보태 주시니 무슨 잔말을 하오리까.”

하고 칠천 냥을 받아 가지고 나온다.

그 후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서 혼자 거처하며 감사의 명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돕는다. 기생을 면함은 다행이나, 밤낮으로 잊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이다. 이 감사가 보는 앞에서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나 혼자 있을 때에는 탄식이 그치지 않는다.

장필성은 송이의 소문을 듣고 참으로 다행이라 여기나, 송이가 있는 별당은 사람 출입을 일절 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초조하다.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한 계책을 생각해 낸다.

‘나도 감사 옆에서 공사를 보는 관속이 되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방면으로 주선을 하던 중, 마침 감사가 문필 있는 이방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그 방면으로 힘을 써 이방이 된다. 그렇게 감사를 뵈오니,

“가히 훌륭한 인재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윗사람을 모시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정성을 다하여 백성들이 불편 없도록 잘 거행하거라.”

장필성은 공손하게 감사의 명을 받들고 이후로는 공사 문서를 가지고 매일 관가에 드나든다. 그러나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여도 별당이 깊고 깊어, 가까이 있어도 천 리와 같다.

한편 송이는 감사가 공사에 쓸 것을 주면 쓰라는 것은 쓰고 빠라는 것은 빼면서 별당에 머물고 있었다. 하루는 채봉이 문서 한 장을 보는데 장필성의 글씨가 분명하다.

‘이상하다. 글씨가 서방님 필체와 같으니, 혹시 관가에 드나드시는 일이 있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감사에게 묻는다.

“요사이 공사 문서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른데, 이방이 바뀌었습니까?”

“장필성이란 사람을 새로 들였다. 네가 보기에 글씨를 잘 썼느냐?”

이 말을 듣고 송이가 뿔 듯이 기뻐서,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만나지 못하면 ㉠ 편지라도 띄울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아시면 무슨 죄를 내리실지 몰라…….’

㉢ 하고 기회를 기다리나 때가 쉽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서로 글씨만 보고 그리워하기를 어느덧 반년이라. 그리움이 사무쳐 서로 상사병이 날 지경이다.

3. 위 글의 특성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대화의 과정에서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의 내적 갈등이 초현실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소되고 있다.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인물의 운명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부정적인 유형의 인물을 희화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비판하고 있다.

4.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필성이 관아 내에 있음에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송이는 소심한 성격이군.
- ② 김 진사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보니 허 판서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이군.
- ③ 송이를 만나려고 이방이 된 것을 보니, 장필성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완이 좋군.
- ④ 딸을 판서의 첩으로 바치려 한 것을 보니, 김 진사

는 현세적 욕망에 매몰되어 있군.

- ⑤ 관청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을 보니, 이 감사는 사람의 능력을 중시하는군.

평양 성내 걸인 되어 이 집 저 집 빌자 하니, 노소인민(老少人民) 아동주졸(兒童走卒)* 이놈 저놈 꾸짖으니 걸식도 못 하리라. 어디로 가잔 말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추월 앞에 나가 앉아 간절히 비는 말이,

㉠ “추월아 추월아. 내 말 잠깐 들어 봐라. 우리 조선이 인정지국(人情之國)이거든 어찌 그리 박절한가. 날 살리게. 내가 자네 집에 도로 있어 물이나 길고 불 사환이나 하고 있으면 어떠할꼬.”

추월이 거동 보소. 눈을 흘겨보면서,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전 행실을 못 고치고 ‘하네’ 소리 하려면 내 집 다시 오지 마소.”

이렇듯이 구박하니, 춘풍이 하릴없어 ‘아가씨’ 말이 절로 나고 존대가 절로 난다.

㉢ 춘풍이 이날부터 추월의 집 사환하는 일, 생불여사(生不如死)*라 가련하다. 누더기 차림으로 이리저리 다닐 적에 거동 불작시면 종로의 상거지라. 조석(朝夕) 먹는 거동 보면, 이 빠진 헌 사발에 눌은밥에 토장 덩이 제격이라 수저도 없이 뜯아래나 부엌에서 먹는 거동, 제 신세 스스로 생각하니 목이 메어 못 먹겠네.

주야로 한량들은 청산에 구름 모이듯 수록재(水陸齋)*에 노승 모이듯, 개성부에 장사 모이듯, 추월의 집으로 모여 와서 온갖 희롱 다 하면서, 좋은 술, 별 안주에 배반(杯盤)이 낭자하며 청가일곡(淸歌一曲) 화답하여 한창 이리 노닐 적에 이때 춘풍의 거동 보소. 뜯아래서 방 안을 엿보니 눈에는 풍년이요, 입에는 흉년이라. 제 신세를 생각하고 노래하되,

“세상사 가소롭다. 나도 경성 장부로 왈자 벗님 취담(醉談)하여 청루미색 가무 중에 수만금을 허비하고, 또 왜 시골 내려와서 주인을 작첩하여 불원상리(不願相離) 하겠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세상사 가소롭다.”

이때는 엄동이라 일락서산하고 바람은 솔솔하고 월색은 조용한데,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내 전정을 들어 보고 내 고향에 전하여라. 우리 처자 그리워라. 나를 그려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리저리 생각하니 대장부 일촌간장 봄눈 슬 듯 하는구나. 그런 정 저런 정 다 버리고 전에 하던 가사나 하여 보세.”

매화타령을 한다.

“매화야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온다. 핼죽도 하다마는 백설이 분분하니 필지 말지, 어화 세상사 가소롭다.”

이때 추월의 방에 놀던 한량들이 노래를 듣고 의심하니 추월이 무색하여 하는 말이,

“내 집의 사환하는 놈인, 서울 이춘풍이라 하는 놈이 소리를 하니 신청치 마소서.”

한량들이 이 말 듣고 하는 말이,
 “서울 산다 하니 불쌍하다.”

하고 술 한 잔 가득 부어 주니, 춘풍이 갈지우갈(渴之又渴)하여 받아먹으니 가련하더라.

각설, 이때 춘풍의 처, 가장을 이별하고 백 가지로 생각하며 주야로 탄식하는 말이,
 ㉠ “멀고 먼 큰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히 돌아오기 천만 축수 기다리오.”

하되 춘풍이 아니 오고, 풍편에 오는 말이 서울 사는 이춘풍이 평양 장사 내려가서 추월을 작첩하여 호강으로 노닐다가, 수만금 재물 다 없애고 추월에게 구박 맞아 사환한단 말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말이,
 “애고애고 이 말이 웬 말이고. 슬프다 이내 가장 나와 같이 만났건만, 어이 그리 허량하고. 청루미색에 한번 치패(致敗)*도 어렵거든 만리타향에 막중국전(莫重國錢)을 대돈변*으로 내어 가지고, 또 낭패하단 말인가.
 ㉡ 애고 답답스런지고, 뉘를 바라고 산단 말인가. 전생에 무슨 죄로 여자가 되어 나서 가장 한번 잘 못 만나 평생 고생하는구나. 이내 팔자 이렇도록 되었는데. 어찌하여 살잔 말인가. 박명한 이내 팔자도 망하기 어렵다. 종남산 다다라서 물명주 질긴 수건 한 끝은 나무에 매고 한 끝은 목에 매어 죽고지고. 여자가 되어 나서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염마국 십전대왕 아귀사자 빨리 보내어 내 목숨을 잡아가오.”

이를 갈며 하는 말이,
 ㉢ “평양을 찾아가서 추월의 집 찾아 불문곡직(不問曲直) 달려들어 추월의 머리채를 잡아쥐고, 춘풍에게 달려들어 허리띠에 목을 매어 죽으리라.”

악을 내어 울다가 도로 풀쳐 생각하되,
 “이리도 못 하리라 어이하여 살잔 말인가. 내 가장을 경성으로 데려다가 살릴지라도 어찌하리요. 아무리 생각하여도 할 수가 전혀 없다. 소년에 패가하여 일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야로 품을 팔아 전곡 빚을 갚은 후에 의식 걱정 아니 하고 우리 양주 백년화락하겠더니, 원수로다, 평양 장사 원수로다.”

이렇듯이 지내는데 뒷집의 참판 댁이 있어, 노대감은 돌아가고 만자제 문장으로 소년 급제하여 갓은 청환(淸宦) 다 지내고 참판으로 근년에 평양 감사 부망(副望)*으로 불구에 평양 감사 한단 말 듣고 춘풍의 처 계교를 생각터니, 그 댁이 빈한하여 국록을 타서 수다식구 사는 중에, 그 대부인 있단 말을 듣고 침재 품을 얻으려고 그 댁에 들어가니, 후원 별당 깊은 곳에 참판의 대부인이 평상에 누워 행세 가난키로 식사도 부실하고 초채하다. 춘풍 아내 생각하되, 이 댁에 부치어서 가장

을 살려 내고 추월을 설치하여 보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침재 품을 힘써 팔아 얻은 돈냥 다 들여서 참판 댁 대부인 조석 진지 차려 가니, 부인이 의외에 때 마다 받아먹고 감지덕지하여 생각하되, ‘이 깊은 은혜를 어찌할꼬.’

주야로 근심하더니, 하루는 춘풍의 처더러 이르는 말이,
 “네가 형세도 어렵고 침재 품으로 살아간다 하는데, 날마다 차담상을 지어 오니 먹기는 좋다마는, 도리어 불안하다.”

춘풍 아내 여쭙오되,
 “소녀 집에 음식 있어 혼자 먹기 어렵삽기로, 마나님 잡수실까 하와 드린 것이옵나니 황송하여이다.”

대부인이 이 말 듣고 매일 사랑하고 기특히 여겨 못내 생각하더라.

하루는 참판 영감 문안하고 여쭙오되,
 “요사이 무슨 좋은 일이 계신지 화기(和氣) 만안하시니까?”

대부인 말씀하되,
 “앞집의 춘풍의 처가 좋은 음식 차담상을 연일 차려오니 내 기운 절로 나고, 그 계집의 정성 감격하다.”

참판이 이 말 듣고, 춘풍의 처를 청하여 보고 치사하니 더욱 기특히 보고 매일 사랑하더라.

천만의외에 참판 영감이 평양 감사를 하였고. 희희낙락 즐길 적에, 춘풍의 처 대부인에게 온공히 여쭙오되,
 “이번에 천은으로 평양 감사 하셨으니 이런 경사 없사이다.”

대부인이 말씀하되,
 “나 평양 가려 하니, 너도 함께 내려가서 춘풍이도 찾아보고 구경이나 하는 것이 어떠하뇨?”

춘풍의 처 여쭙오되,
 “소녀는 고사하고 오라비 있사오니, 비장* 한몫 주시기 바라나이다.”

대부인이 이 말 듣고,
 “네 청이야 아니 들을쏘냐?”

하고 감사께 통기(通寄)하니, 감사 허락하고,
 “제가 비장할 양이면 바빠 거행하라.”

하니, 춘풍의 처, 없는 오라비 있다 하고, 제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상 벗어 놓고 남자 의복 치장한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

*아동주졸: 철없는 아이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

*생불여사: 몹시 곤란한 지경에 빠져 삶이 죽음만 못한 상황임.

*수룩재: 물과 육지에서 외로이 떠도는 귀신들과 아귀에게 공양하는 제사.

*치패: 살림이 아주 결단남.

*대돈변: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림.
 *부망: 벼슬자리에 추천된 세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둘째가는 사람.
 *비장: 조선 시대에, 감사나 유수 등의 고위 관리를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 벼슬.

5. 이 글을 희곡으로 각색하고자 할 때, 설정할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풍이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떠나는 장면
- ② 평양으로 간 춘풍이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흥청망청 탕진하는 장면
- ③ 춘풍이 장사를 떠난 후 춘풍의 아내가 참판 댁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장면
- ④ 춘풍의 처가 남장을 하는 장면
- ⑤ 춘풍의 아내가 평양으로 부임하는 사또에게 비장으로 데려갈 것을 청하는 장면

6. <보기>를 참고로 이 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 작품과 사회·문화적 상황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가 사회적 존재로서 경험한 모든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작품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작품은 필연적으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을 맺는다.

- ① 춘풍의 아내가 비장의 지위를 빌려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볼 때, 당시의 비장은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어.
- ② 춘풍과 그의 아내는 전통적인 남녀관계가 역전된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어. 이것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 남녀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
- ③ 평양 감사가 춘풍의 아내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대의 지배 계층은 유교적 도덕관이 붕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해.
- ④ 추월이는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지조와 절개를 묵숨처럼 지키려는 기생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 상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금전적 가치가 중시되었던 당대의 시대상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 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인으로 그려진 춘풍의 아내가 변화하는 여성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

실웅가 성을 내어 호령하며 왈,
 “네가 나의 형세 유여함을 듣고 재물을 탈취하려고 돌입내정하였으니, 강쇠야 이놈 잡아내라.”
 종놈들 대답하고 달려드니 허웅가 나았으며 호령 왈,
 “강쇠야 저놈 잡아내라.”
 노복들이 어이없어 이도 보고 저도 보니 이 웅 저 웅 이 같은지라. ㉠ 양 웅이 상투하니 백운심처 처사 찾기는 쉬울지라. 백주당상 차방중에 우리 댁 좌수님은 찾을 가망 전혀 없어 묵묵부답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말이,
 “일이 났소 일이 났소. 아씨님 일이 났소. 사랑에서 일이 났소. 우리 댁 좌수님이 돌이 되었으니 보는 바 처음이라. 가종의 이런 변이 세상에 또 있는가.”

[A]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대경실색,
 “애고애고 이게 웬 말이냐. 너희 좌수님이 중을 보면 결박하고 악한 형벌 무수하고 불도를 능멸하며 팔 십 당년 늙은 모친 박대한 죄 없을 쏘냐. 지신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술하여 하늘이 주신 죄를 인력으로 어이하리.”

춘단 어미 바빠 불러, / “네가 나가 진위를 알아 오라.”

춘단 어미 바빠 나와 문틈으로 내다보니, “네가 웅가냐, 내가 웅가다.” 하며 서로 호령하니, 언어 동정 이목구비 두 좌수 똑같으니 춘단 어미 하는 말이,
 “수지오지자옹*이라, 게 뉘라 알아볼까.” / “마누라님, 소비는 알 수가 전혀 없소.”
 마누라님 하는 말이,
 “너희 댁 좌수님은 새로 좌수하여 도포를 급히 다루다가 불뚱이 떨어져서 안자락이 타서 구무가 있으니 글로 보아서 알아 오라.”

춘단 어미 또 나와 사랑문 열떠리고,
 “알 일이 있사오니 도포를 보사이다. 안자락에 불뚱 궁기 있삽나이다.”

실웅가 나았으며 도포 자락 펼쳐 보니 분명할새 우리 댁 좌수님이라. 허웅가 나았으며,
 “에라 이년 요망한 년 가소롭다. 남산 봉화 들 제 인경 치고 사대문 열 제 순라꾼이 제격일다. 그만 표는 나도 있다.”

안자락을 펼쳐 뵈니 그도 또한 불구무라.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한 거동 보소.
 “애고애고 마누라님 나가 보옵소서. 소비는 알 수 없소.”

[B]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우리 둘이 만날 적에 여필종부 본을 받아
서산에 지는 해를 긴 노로 잡아매고, 살아
서 이별 말고 죽어 도 한날 죽자 천지로
맹서하고 일월로 증언터니, 의외에 변이
있으니 꿈이나 생시냐. 이 일이 웬일인가.
도덕 높은 공부자도 양호의 얼을 입었다가
도로 놓여 성인 되었으니, 자고로 성인네
도 일시 곤액 있거니와,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내 행실 가지기를 송백같
이 굳은 마음 두 낭군이 무삼일꼬.”

이같이 자탄할 때 며늘아가 여쭙오되,
“집안에 변을 보매 무슨 체모 있으리까.”
사랑문을 열고 들어가니 허웅가 나왔으며,
“아가, 자세히 들어 보아라. 창원 마산포서 너희 신행
하여 올 때 기마 십여 필에 온갖 기물 실어 두고, 나
는 후배하여 따라올 제 상사마 한 필 뒤등 걸어 실은
것이 모두 다 파삭파삭 절단 나서 놋동이 한복판이 떨
어져서 쓰지 못하고 벽장에 넣었으니, 그도 또한 헛말
이나. 너의 애비는 내로다.”

㉔ 실웅가 나왔으며,

“애고 저놈 보소. 내가 할 말 제가 하네. 애고애고
이 일을 어찌하리. 새아가, 내 얼굴 자세히 보아라. 네
시아비는 내 아니냐.”

며느리 여쭙오되,

“우리 아버님은 두상에 금이 있고 금 가운데 백발이
있사오니 이 표를 보사이다.”

실웅가 나왔으며 머리를 풀고 표를 뵈니, 이 대가리
뽕뽕하여 송곳으로 찔러도 물 한 점 아니 날레라. 허
웅가 나왔으며 ㉕ 요술 부려 흰 털을 빼어다가 저의 머
리 붙이니, 실웅가의 표는 쓸데없고 허웅가의 표가 분
명 하다.

“며늘아가, 내 머리 자세히 보아라.” / 하니, 며느리
나왔으며,

“예, 우리 시아버님이요.” / 하니, 실웅가 갓은 복통
하여 머리를 와득와득 두드리며,

“애고애고 허웅가는 제 애비 삼고 실웅가는 구박하
네. 기막혀 나 죽겠네. 내 마음 설운 원정 뵈다려 하여
볼까.”

(나) 사또 분부하되, / “양 웅을 각기 잘 살펴보아라.”

하고, 육방 하인이며 내빈 행객 모두 살피되 전혀 알
수 없는지라. 형방이 아뢰되,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지이다.”

허허 그 말을 옳다 하고 호적색을 불러 양 웅의 호적
을 강(講) 받을 제 실웅가 나왔으며 아뢰되,

“㉖ 민의 애비 이름은 웅송이웁고 조는 만송이로소이
다.”

사또 왈, / “그놈 호적은 웅송만송하다. 알 수 없으니
저 백성 아뢰어라.”

허웅가 아뢰되,

“자아골 김동네 좌정 시에 민의 애비가 좌수를 거행
하올 때에 백성을 애휼한 공으로 하여금 연호잡역을 삭
감하였기로 경내 유명하오니, 웅돌면 제일호 유학에 웅
고집이라. 고집의 연이 삼십칠이요, 부 학생에 웅송이오
니 절충장군하옵고, 조는 상이오나 오위장하옵고, 고조
는 맹송이요, 본은 해주으며, 처는 최씨요, 본은 진주
요, 술자의 골이오니, 연이 십구 무인생이요 천비 소생
이 돌쇠오니, 또 민의 세간을 아뢰리다. 곡식 두태 합하
여 이천백 석이요, 마구에 기마가 여섯 필이요, 암돌 솥
돌 합 이십 수요, 암탉 장닭 합 육십 수요 기명 등 안
성 방자 유기 열 벌이요, 앞단이 반단이며 이층장 화류
문갑 용장 봉장 가계수리 산수 병풍 연화병 다 있사옵
고, 모란 그린 병풍 한 벌은 민의 자식 신흠 시에 매화
그린 폭이 꺾어져 고치려 하 고 다락에 따로 얹어 두었
사오니 글로도 아옵시고, (중략) 진 신 마른 신이 석 죽
이요, 쌍코줄 번자 여섯 켤레온 중 한 켤레는 이달 초
사를 밤에 쥐가 코를 새겨 신지 못하와 안벽장에 넣었
으니, 일로도 염문하와 하나도 틀리거든 장하에 죽사와
도 변백무로오니, 저놈이 민의 세간 이렇듯이 유여함을
듣고 욕심을 내어 송정을 요란케 하오니, 저렇듯 무도
한 놈을 처치하여 후인을 경계하옵소서.”

사또 듣기를 다하매 왈, / “그 손이 참 웅 좌수라. 술
권하여라.”

하고, 당상에 올려 앉히고 기생을 부르니 일색 기생 술
을 들고 권주가 화답하되,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면 천만년이나 살으시리라. 이 술은 술이 아
니라 한 무제 승로반에 이슬 받은 것이오니 쓰나 다나
잡수시오.”

웅 좌수 흥을 내어 술잔을 받아 들고 하는 말이,

“하마터면 아까 세상을 저놈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등
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다. 그러나 성
주 덕택에 흑백을 가려 주옵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
이다. 한 차례 민의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 한잔 대접하
오리다.”

“그는 염려 말게. 처치하여 줘세.”

실웅가를 불러 분부하되,

“네가 흥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 탈
취하려 하니, 네 죄상은 마땅히 의을 정배할 것으로 되
고의 안세하니 바빠 어서 물리치라.”

대곤 삼십 도를 맹치하여 엄문 죄목 하되,

“인제도 웅가라 하겠느냐.”

실용이 생각하되 만일 옹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듯하니,
 “예, 옹가 아니오. 처분대로 하옵소서.”
 - 작자 미상, 「옹고집전(壅固執傳)」

* 수지오지자웅(誰知烏之雌雄):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분간할 수 있겠는가.’라는 뜻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가 어려움을 일컫는 말.

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② 사건 전개가 비현실적이다.
 - ③ 상황을 과장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체를 활용하고 있다.
 - ⑤ 윤리적인 덕목을 내세워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8. ㉠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오지랖이 넓기도 하군.
- ②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네.
- ③ 공든 탑이 무너져 버렸구나.
- ④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 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군.

[앞부분의 줄거리] 제갈공명이 뛰어난 인재라는 말을 들은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그를 감동시켜 모사(謀士)로 맞아들인다. 한 편 조조는 백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에 나선다. 제갈공명은 오나라로 가서 손권과 주유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조와 맞서 싸우도록 유도한다. 드디어 적벽에서 싸움이 벌어져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이 승리하고 조조는 많은 군사를 잃고 달아나게 된다.

<중중모리>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 둘러메고 발세치레 건조로 세 발걸음 중뛰엄 몸을 날려 경충경충 섭수 있게* 들어와, / “예.”

<아니리>

조조 깜짝 놀래어,
 “예끼 웬 놈이 저리 성하냐. 저놈이 장비 군사 아니냐.”
 “성하거든 회 처 잡수시오.”

“그건 무슨 말이나.”
 “병든 놈 대려 먹자기로 성한 놈은 회 처 잡수시라 하엿소.”
 “어따 이놈아 그놈이 하도 불쌍하기로 그랬다. 또 불러라.”
 “마병장 구먹쇠.” / “예.”
 “너는 전장에 잃은 건 없느냐.” / “잃은 건 별로 없습니다.”
 “야 거 신통허다. 그럼 말은 다 어쨌느냐.” / “팔았소.”
 “저런 송헌 도적놈이 있나. 그 좋은 말을 나더러 묻도 않고 네 것 팔 듯 팔었던 말이나.”
 “한나라 공명이가 사려 보내더라고 왔기에 미리 댓돈 금으로 열일곱 바리에 양 일곱 돈 받고 팔어 버렸소.”
 조조 기막혀, / “그놈 눈구녁이 큰일 낼 놈이로고.”
 ㉠ “눈이사 승상님 눈이 더 큰일 낼 눈이지요.”
 “어따 이놈들 말말에 폭폭하야 나 죽겠다. 시장하니 군량식이 불러 밥 지어라.”

<중모리>

㉠ 점고*하야 보니 불과 백여 명이라 그중의 갑옷 벗고 투구 잃고 앓은 놈 누운 놈 옆진 놈 패(沛)진 놈* 배가 고파 기진한 놈 고향을 바라보고 양천통곡 호천망극 길 갈 수 전혀 없네. 조조 마상에서 채를 들어 호령하며 행군길을 재촉하더니만,

<아니리>

“히히히히히 해해해해.” / 대소허니 정육이 기가 막혀,
 “야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적벽에서 한 번 웃어 백만 군사 몰사하고 오림에 두 번 웃어 죽을 봉변당하고 이 병 속 같은 데서 또 웃으셨으니 이젠 씨도 없이 다 죽는구나.”
 조조 듣고 대답하되,
 “너희도 생각해 보아라. 주유 공명이가 이곳에다 복병은 말고 병든 군사라도 여너무 명 두었더라면 조조 말고 비조라도 살어갈 수 있겠느냐. 히히해해.” / 대소허니,

㉡ <자진모리>

웃음이 지듯마듯 화용도 산상에서 방포성이 쿵 이 너머에서도 쿵 저 너머에서도 쿵 궁그르 궁그르 궁그르.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 듯 뇌고 나팔 우통쟁처르르르 화용 산곡이 뒤끓으니 위국장졸들이 혼 불부신(魂不附身)*하야 면면상고(面面相顧)* 서 있을 제, 오백도부수(刀斧手)가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기를 들었난디 대원수 관공 삼군 사명기라 동두렷이 새겼는데 늑름하

다. 주안봉모(朱顔鳳眸)* 와잠미(臥蠶眉)* 삼각수(三角鬚)*에 봉의 눈을 부릅떠 청룡도(靑龍刀) 비껴들고 적토마 달려오며 우레 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뒤지르며,
 “어따 이놈 조조야. 날다 길다 길다 날다 긴 목을 길게 빼어 칼 받으라.”
 조조가 황겁하야, / “여봐라 정욱아, 오는 장수 누구냐.”
 정욱이도 혼을 잃고 / “호통 소리 장비 같고 날랜 모양 자룡 같소.”
 “자세히 살펴보아라.” / “기색은 홍색이요 위풍이 인후(仁厚)하니 관공일시 분명하오.”
 “더욱 관공이라면 옥도무처(欲逃無處)요 옥탈무계(欲脫無計)라*. 사세도차(事勢到此)하니* 아무렇게나 한번 싸워 볼밖에는 수가 없다. 너희들 조조의 웅명(雄名)이 삼국에 으뜸이라. 사즉사(死即死)언정 이 제 내가 비는 것은 후세의 웃음이 되리로다.”

<아니리>

“허허 아들이 신통한 꾀 하나 생각했다.” / “무슨 꾀를 생각했소.”
 “나를 죽었다고 홀이불로 덮어 놓고 너희 모도 군중에 발상(發喪)*하고 앉어 울면 송장이라고 막걸리 동우나 내고 피할 것이니 홀이불 둘러쓰고 살살 기다가 한 달음박질로 길로 달어나자.”
 정욱이 기가 막혀,
 “산 승상 잡으려고 양국 명장 쟁공(爭功)*하오.”
 “힘을 써서 한번 대전하야 보자.” / 정욱이 여짜오되,

<중모리>

“장군님의 높은 재조 호통 소리 한번 나면 길짐생도 갈 수 없고 검광이 번뜻 나면 나는 새도 뚝 떨어지니 적수단검으로 오관참장(五關斬將)*하는 수단 인마기진(人馬氣盡)*하였으니 감히 어찌 당하리까. 만일 당 적을 허랴 허면 씨도 없이 모도 죽을 테니 전일 장군께서 승상 은혜 입었으니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 빌 마음도 있다마는.”
 “사 승상(死丞相) 목 베기야 청룡도 드는 칼로 눈목 얼마나 그리 힘들여 베오리까. 공연한 꾀 내었다 목만 허비될 테니 얄은꾀 내지 말고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섭수 있게: 솜씨 있게.
 *점고: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 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함.
 *패진 놈: 넘어진 놈.
 *혼불부신: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났을 잃음을 이르는 말.

*면면상고: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봄.
 *주안봉모: 붉은 얼굴에 봉황의 눈동자.
 *와잠미: 잠자는 누에 같다는 뜻으로, 길고 굽은 눈썹을 이르는 말.
 *삼각수: 두 뺨과 턱에 세 갈래로 난 수염.
 *옥도무처요 옥탈무계라: 도무지 도망갈 길이 없다.
 *사세도차하니: 일의 형세가 이 지경에 이르니.
 *발상: 상례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림. 또는 그런 절차.
 *쟁공: 공로를 서로 다툼.
 *오관참장: 다섯 관문의 장수를 뱀.
 *인마기진: 사람과 말의 기운이 다 빠짐.

9. [보기]와 비교할 때, ㉠에 대한 조조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관공은 관우를 가리키는데 그는 중국 삼국 시대 촉(蜀)나라의 무장(武將)이다. 그는 후한 말(後漢末)의 동란기에 탁현에서 유비와 장비를 만나 의형제를 맺고 평생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어서 송나라 때 이후로 그를 무신(武神)으로 모시는 등 중국 민중의 신앙적 대상이 되었다.

- ① 태산 같은 높은 의기와 맹호같이 장한 위엄을 헛되이 버리시려오.
- ② 견마(犬馬)같이 천한 저의 나이 53세 되었으니 인제 산들 몇 해 살겠소.
- ③ 함정에 빠진 짐승 열어 놓아 살리시오. 그물에 걸린 새를 끌러 놓아 살리시오.
- ④ 장군님 날 떠나가실 적에 후일에 남은 은혜를 갚겠다고 써 주신 각서가 여기 있소.
- ⑤ 천리마 주던 사람 평생 아니 잊었으니 장군도 적토마 보아 오륜(五倫)을 생각하오.

10. ‘조조’의 인물됨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군.
- ② 부하들을 예우하다니 예우가 바르군.
- ③ 기백이 있는 척 하더니 쉽게 말을 바꾸는군.
- ④ 위기에 처해서도 제왕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군.
- ⑤ 체면은 생각하지 않고 현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군.

[앞부분의 줄거리] 불라국의 오구 대왕과 갈대 부인은 공주만 여섯을 내리 낳고, 일곱 번째 낳은 아기도 공주임을 알고 강물에 띄워 버린다. 세월이 흘러 오구 대왕과 갈대 부인은 큰 병에 걸렸는데, 서천 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구해 와야 하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한편 버려진 바리공주는 석가세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내다 부모의 상황을 알고 자청하여 약수를 구하러 떠난다.

석가세존님 하시는 말씀이,
“국왕에게 칠 공주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세자 대군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너를 대양서촌(大洋西村)에 버렸을 때에 너의 잔명(殘命)을 구해 주었거든 그도 그럭 하려니와 평지 삼천 리를 왔지마는 험로(險路) 삼천 리를 어찌 가려느냐?” / “가다가 죽사와도 가겠나이 다.”

“라화(羅花)*를 줄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큰 바다가 있을 테니 이것을 흔들면은 대해(大海)가 육지가 되나니라.”

가시성(荊城) 철성(鐵城)이 하늘에 달은 듯하니,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라화를 흔드니 팔 없는 귀신, 다리 없는 귀신, 눈 없는 귀신 억만귀졸(億萬鬼卒)이 양마구리* 끌 듯하는구나.

칼산지옥 불산 지옥문과 팔만 사천 제지옥문을 열어, 십왕 갈 이 십왕으로, 지옥 갈 이 지옥으로 보내일 때, 우여 슬프다 선후망의 아모 망재 썩은 귀 썩은 입에 자세히 들었다가 제 보살님께 외오시면 바리공주 뒤를 따라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가시는 날이로성이다.

아기가 한곳을 바라보니, 동에는 청유리 장문(牆門)이 서 있고 북에는 흑유리 장문이 서 있고, 한가운데는 정렬문(貞烈門)이 서 있는데 무상 신선(無上神仙)이 서 계시다. 키는 하늘에 달은 듯하고, 얼굴은 쟁반만 하고 눈은 등잔만 하고, 코는 줄병 매달린 것 같고, 손은 ㉗ 소댕[釜蓋]만 하고 발은 석 자 세 치라. ㉘ 하도 무서웁고 끔찍하여 물러나 삼배를 들이니, / 무상 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사람이뇨 귀신이뇨? 날짐승 길버러지도 못 들어오는 곳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데서 왔느냐?”

“나는 국왕마마의 세자로서 부모 봉양 왔나이다.”

“부모 봉양 왔으면은 물값 가지고 왔소? 나뭇값 가지고 왔소?” / “㉙ 충망길에 잇었나이다.”

“㉚ 물 삼 년 길어 주소, 불 삼 년 때어 주소, 나무 삼 년 베어 주소.”

석삼년 아홉 해를 살고 나니, 무상 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앞으로 보면 여자의 몸이 되어 보이고 뒤로 보면 국왕의 몸이 되어 보이니, 그대하고 ㉛ 나하고 백 년가약을 맺어 일곱 아들 낳아 주고 가면 어떠하뇨?”

“㉜ 그도 부모 봉양할 수 있다면은 그리하성이다.”

천지로 장막 삼고, 등척으로 베개 삼고, 잔디로 요를 삼고, 떼구름으로 차일(遮日) 삼고, 셋별로 등촉(燈燭)을 삼아 초경(初更)에 허락하고, 이경(二更)에 머무시고, 삼경(三更)에 사경 오경(四更五更)에 ㉝ 근연 맺고, 일곱 아들 낳아 준 연후에 아기 하는 말씀이,

“아무리 부부 정도 중하거니와 부모 소양 늦어 감네. ㉞ 초경에 꿈을 꾸니 ㉞ 은바리가 깨어져 보입디다. 이경에 꿈을 꾸니 은수저가 부러져 보입디다. 양전마마 한날한시에 승하하옵신 게 분명하오. 부모 봉양 늦어 가오.”

“그대 깃든 물 약려수이니 금장군에 지고 가오. 그대 비든 나무는 살살이 뼈살이니 가지고 가오.”

“㉟ 앞바다 물 구경하고 가오.” / “물 구경도 경이 없소.” / “㊱ 뒷동산의 꽃구경하고 가오.”

“꽃구경도 ㊲ 경이 없소.” / “전에는 혼자 홀아비로 살아왔거니와 이제는 여덟 홀아비가 되어 어찌 살나오?”

“일곱 아기 데리고 가오.” /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큰 아기는 걷게 하고 어린 아기는 업으시고, / 무상 신선 하시는 말씀이,

“㊳ 그대 뒤를 좇으면은 어떠하오?”

“여필종부(女必從夫)라 하였으니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한 몸이 와서 아홉 몸이 돌아가오.” (중략)

“양전마마 한날한시에 승하하셔서 인산거동 난 줄 아는데, 그대는 사람이뇨 귀신이뇨. 바리공주는 약수 삼천 리 약을 얻으러 가더니, 죽었는지 살었는지 소식이 둔절(頓絶)하다.”

바리공주 깜짝 놀라 일곱 아기는 덩불 밑에 숨기시고, 무상 신선은 수풀 속에 숨기시고

“명정(銘旌) 삽선(簪扇) 바라보니 임금 왕 자 분명하다.”

“곤포(袞袍) 만장(輓章) 바라보니 신하 신 자 분명하다.”

머리 풀어 발상(發喪)하고, / “시녀 상궁들아, 장안[帳內]으로 시위해라.”

“만민 조정들아, 장 밖[帳外]으로 시위해라.” / “소여 대여(小與大與) 나우쳐라.”

천개(天蓋)*를 위로 들어서 굴러 사개를 물리치고, 것매 일곱 고를 풀어 헤치시고, 숨살이는 살에 넣고 뼈살이는 뼈에 넣고, 살살이는 살에 넣고 일영주(日映珠)는 눈에 넣고, 약려수는 입에 흘려 넣으시고 한날한시에 회춘하옵시니 / “잠도 깊이 들었구나. 앞바다 물 구경 나왔드냐. 뒷동산 꽃구경 나왔드냐.”

“물 구경도 아니옵고 꽃구경도 아니옵고 한날한시에

승하하셔서 인산 거동 났나이다. 바리공주가 약수 삼천리에 가서 회춘약 구해다가 한날한시에 회춘하야 계웁시나이다.”

인산령(因山令)을 걷고 거동령(擧動令)을 뚫는다. 어전마마 통명전에 환궁하시고 칠대 중전마마는 내전으로 환궁하시고 만조백관과 삼천 궁녀와 산호만세를 부른 후에 만백성도 일시에 만세를 부르니라.

“만조백관은 문안이 있어도 아기씨는 어찌 문안이 없느냐?”

“아기씨 죄를 짓고 왔나이다. 무상 신선과 양위되어 일곱 아들 낳아 왔나이다.”

“네 죄가 아니라 내 죄로다. 너를 국(國)을 받을 주랴? 사대문에 드는 천을 주랴?”

“국도 지녀야 국이웁고 천도 지녀야 천이로소이다. 소녀 부모 슬하에 호의호식 못 하였사오니 만신(萬神)의 인위왕(人爲王)이 되겠나이다.”

치여다 백재일은 산 이 천도하고, 내려다 유재일은 죽은 이 천도하고, 치여다 원증입증[元絀立塵] 수조고 리* 입단치마 수당혜(繡唐鞋)* 은아 몽두리 철쇠방울* 넓은 흥 띄 쇠대한림* 만신의 몸주[身主] 되다.

— 작자 미상, 「바리공주」

* 라화 : 비단으로 만든 가짜 꽃.

* 양마구리 : 악머구리. ‘잘 우는 개구리’라는 뜻으로, ‘참개구리’를 이르는 말.

* 천개 : 관의 뚜껑.

* 원증입증 수조고리 : ‘위로는 원주 비단으로 수놓은 저고리’라는 뜻임.

* 수당혜 : 수를 놓은 당혜. ‘당혜’는 가족신의 한 가지.

* 철쇠방울 : 쥐는 방울.

* 쇠대한림 : 넓고 큰 부채.

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를 보인다.

12.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자로 정착되지 않고 구전을 통해 구전되었다.
- ② 여성들이 사회를 주도하던 시대에 출현한 무가이다.
- ③ 죽은 혼령을 위로하는 오구굿 계통에서 구연되었다.
- ④ 부모를 살리려는 바리 공주의 희생과 고난이 주제이다.
- ⑤ 여성의 수난과 극복이라는 모티프(화소)가 드러나 있다.

1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의 여성성을 바탕으로 한 모험과 성취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죽은자의 혼을 위로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찬미할 목적으로 구연된다.
- ③ 여성의 노동을 통한 구원 과정은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 ④ 신을 즐겁게 하고 신에게 소원을 빚으로써 복을 얻는다는 주술성을 가진 작품이다.
- ⑤ 여성 주인공의 시련과 그 시련의 극복을 중심으로

정답 및 해설

1) <답> ⑤

김생은 말에서 떨어진 뒤 회산군의 집으로 옮겨진다. 그 곳에서 영영을 다시 만난 김생은 가까이 있는 영영과의 사랑을 이룰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상사병은 더욱 깊어진다. 그러나 영영과의 만남 이후 김생의 성격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① 김생과 영영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② 이정자와 회산군 부인은 김생과 영영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③ 사건이 인과 관계에 따르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다. ④ 선비와 궁녀라는 사회적(현실적) 제약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 <답> ④

이 글에서 이정자는 김생이 병을 얻게 된 사연을 듣고, 자신의 고모인 회산군 부인에게 부탁하여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 내고자 한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상사병이 난 김생의 모습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이정자는 김생의 상황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③ 이정자는 김생의 병이 영영으로 인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영영과의 사랑만 이루어진다면 김생의 병이 나을 수 있음을 알고 고모님의 도움을 청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⑤ 이정자는 자신의 고모인 회산군 부인님을 위해 베푸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회산군 부인이 김생의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3) <답> ②

이 작품에는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 ①허 판서와 김 진사의 대화를 통해 갈등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4) <답> ①

장필성이 관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 것은, 송이의 성격이 소심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현실적 제약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신분상으로 볼 때 송이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이방 신분의 장필성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5) <답> ③

작품의 내용으로 볼 때, 춘풍이 호조 돈을 얻어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 후 춘풍의 아내는 바느질품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간다. 그 돈으로 참판 댁 대부인을 정성으로 대접하고 그의 아들이 평양감사로 내려갈 때 비장으로 따라가게 된다. 이러한 사건 전개 과정으로 보아, 춘풍의 아내가 참판 댁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장면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6) <답> ③

<보기>의 자료는 문학 작품과 사회·문화적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문학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적 도덕관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사가 처를 돕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답> ① [서술상의 특징] ①은 '서술자'가 미래를 암시하는 부분은 없다. ③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인 과장과 해학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④는 '-것다', '-보세' 투의 서술자 개입을 통해 청중에게 작중 상황을 설명해 주는 투가 나타나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는 권선징악과 효행 등의 덕목을 실용의 신분 추락과 회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8) <답> ④ [상황에 적합한 표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답은 ④이다. 적반하장이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듣는 뜻"으로 실용의 처지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다.

9) <답> ④ <보기>에는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관우의 신실한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 ㉠에서 관우는 조조를 위협하던 하북(河北)대장 안량(顔良) 문추(文醜)를 죽였음을 들어서 자신이 조조에게 입은 은혜를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조는 관우가 떠날 때에 후일에 남은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한 각서를 제시하면서 관우를 설득할 수 있다.

10) <답> ⑤ 조조는 얇은 껍을 내어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제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당면한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비판할 수 있다.

11) <답> ②

<바리공주>는 죽은 자의 혼을 위로하고, 이승의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장애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려진 노래이다.

12) <답> ②

바리 공주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림받고 고통 받는 것은 당대 여성의 수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전통 사회의 남성 우월 사상이 만연해 있던 시대의 작품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던 시대에 여성들이 많은 수난을 당하면서도 지혜를 발휘하여 이를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여성의 수난과 극복의 모티프를 가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